



도, 철근 담합 비리 손배소송 '공동대응'

“평가 과정 투명... 절차상 문제 없다”

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 해명

공정거래위 “11개 철강업체 수년간 입찰 과정 담합” 조달청, 업체 상대 소송 계획... 도, 참여 동의서 제출 “소멸시효 때문 2018년 입찰계약 물량 175억만 적용”

제주도가 철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지목된 철강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달청과 함께 공동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조달청에 ‘관급철근 입찰담합 공동손해배상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동의서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조달청은 전국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 제강사 7곳과 압연사 4곳 등 11개 업체가 수년간 공공분야 철근

입찰 과정에서 담합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11개 업체는 2012~2018년 조달청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해 사전에 낙찰 물량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간 130만~150만t의 물량을 발주하는 데 이들 업체는 입찰 당일 모여 미리

판 배분 물량, 투찰 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정연습을 하는 등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담합한 규모는 모두 6조8442억원(발주 금액 기준)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 규모다. 제주도가 소송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제주시, 서귀포시와 함께 2018년 조달청을 통해 입찰 구매한 철근 규모를 파악한 결과 모두 175억원 어치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1개 업체의 철근 가격 담합 행위는 2012년부터 이어졌지만 제주도가 2018년 계약 물량만 파악한 이유는 손해배상 소멸시효 때문이다.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금전 채권은 5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진

다. 2018년 철근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금전 채권 소멸 시효도 다음 달 25일 만료되기 때문에 조달청과 제주도는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과 연계해 다음달 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제주를 포함해 이번 소송에 공동 참여하는 각 지자체별 손해배상 규모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정부법무공단이 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남은 2018년 철근 구매 물량만 조사했기 때문에 11개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실제 손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 같다”면서 “이번 소송의 취지는 담합행위로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공급 받은 것에 대한 배상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해 첫 공모 절차 시작 기존법인 관행 탈피할 것”

속보=제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주체가 23년 만에 바뀌면서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가 “절차 상 문제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제주도는 22일 제주도청 기자회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열린 제주 장애인총연합회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했다. 도는 우선 “관련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했으므로 근거 없는 공정성 의혹 제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거로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관련 조례 및 조항에 따라 도의회·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들로 구성했으며, 도지사가 최종 위촉했다”며 “수탁기관 평가 및 선정은 공고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해 고득점을 받은 법인을 선정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도는 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및 심사결과 모두 비공개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했다. 도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특정한 안전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 위원회이므로, 관련 조례 및 조항에 따라 회의정보는 비공개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그동안은 계약 형식으로 처리했고, 공모 절차를 진행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며 “민간위탁기관들이 대부분 기존 법인에서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는데,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탐라장애인복지회관 뿐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대해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다혜기자

화학물질 누출사고 작년 제주서 5건 발생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총 5건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2건이 교육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소방청이 발표한 2022년 국내 발생 화학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에서 총 218건의 화학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228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24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역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29건, 인천 23건, 울산 18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례적으로 제주에서는 수은·포르말린·질산 누출 등 5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한 해 동안에만 5건이 집중됐으며 이중 2건은 교육시설에서 발생했다. 소방청은 “제주지역 사고는 실험실 노후와 시약 장기 보관 또는 방치 등으로 인해 수은과 포르말린이 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겨울 끝자락 '바다 즐기기' 22일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제주의 청정 겨울바다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섬 노루 4300여마리 서식 추정

세계유산본부 지난해 도내 6개 읍면 표본조사

제주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가 지난해 구좌·조천·애월·남원·표선·안덕 등 6개 읍면을 표본조사한 결과 제주전역에 4300여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2021년 진행한 표본조

사 결과 4200마리보다 100여 마리가 증가한 것이며 서식밀도는 ㎩당 평균 2.96마리로 2021년 평균 2.87마리보다 소폭 증가했다. 제주노루 개체수는 2019년 6월 한시적 유행동물 지정에서 해제된 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

지 적정 서식 개체수인 6100마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노루는 개체수가 1만2800마리까지 증가하면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자 2013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유행야생동물로 지정해 총기포획이 이뤄진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안정된 서식 공간이 줄고 야생 들개에 의한 피해, 로드킬, 경쟁동물인 사슴류 증가 등으로 노루 개체 수 증가속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투명성 가로막는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을”

탐라장애인복지관 공모 관련 참여환경연대 도의회에 촉구

도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제정된 조례가 오히려 정보공개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본보 2월 21일 보도)에 대해 시민단체가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2일 ‘위원회 투명성 가로막는 회의록 공개 조례 개정하라’는 성명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만든 ‘제주 자치도 회의록 공개 조례’가 독소 조항으로 밀실 운영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운영 공모 심사에서 23년간 위탁 운영한 제주장애인총연합회가 탈락하고 한국지체장애인이협회가 선정된 사안과 관련 “탐라장애인복지관을 23년간 위탁 운영해 온 제주

장애인총연합회가 공모 심사결과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면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당연한 행보이며, 이들은 회의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권이 관계돼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과정을 비공개한다면 공모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도민 알 권리는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회의록 공개 조례의 예외 조항은 ‘위원회 특성상 안전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 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로 인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매우 추상적인 기준의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며 “도의회는 위원회 심의와 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독소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도영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최신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국내육성 전량 좋은 신종품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 향, 껍질 벗기기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확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원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자봉)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친해형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순에 성숙하며 과실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레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공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이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절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 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친해형, 황금향, 유라조생, 공친, 흥진, 카라향, 산화향(흰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허균, 팔삭, 세미봉, 금귤, 당유자, 아미나스, 미니몬, 국내산 행사묘목 판매(신규 2022-2023)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사전예약 주문생산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 010-4736-2479 / 010-6500-2329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리991번길1(수산리735)